

병원감염 감소를 위한 노력

박은숙 / 세브란스병원 감염관리실



지난달에 알아본 병원감염의 문제들은 실제 현대 의학의 수준으로는 아무리 병원감염관리를 완벽하게 한다면 100% 예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병원감염 감소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병원감염 감소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자.

병원감염 감소를 위한 노력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1840년대의 오스트리아 산부인과 의사인 Semmelweis가 분만 개조 시 손을 소독제로 씻도록 함으로써 산욕열로 인한 사망률을 18.3%에서 2.9%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 병원감염관리의 시작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또한 나이팅게일 역시 간호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감염관리에서도 위대한 자취를 남기고 있다. 크리미아 전쟁 당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수 보다 병원에서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악명 높았던 군병원에서의 사망률을 위생적인 환경관리와 환자의 영양관리 등으로 급격히 감소시키고 이를 통계적으로 증명하였던 것이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현재의 감염관리체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병원감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병원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감염관리방법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병원감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병원감염감시, 감염관리 규정 및 지침의 마련 및 이를 위한 교육, 감염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병원감염감시 (Surveillance)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이를 위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병원감염관리를 통해 최대 38%정도의 예방효과가 있음이 증명되면서 감염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여기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감염관리활동은 병원감염 발생률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한 문제점의 발견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의 수행, 수행된 감염관리방법의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감염감시(surveillance)활동이다. 감시활동은 병원감염관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서 감시활동을 통해 병원감염률이 계산되고 이를 통해 다시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였던 활동들이 평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감염률을 조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병원감염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감염관리 규정 및 지침의 마련

병원감염관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감염감시 활동 이외에 필요한 것은 감염관리를 위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나 지침은 병원내 모든 장소와 모든 직원에 의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나 지침이 실제상황에서 원활하게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의료인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병원감염관리의 조직과 인력

감염관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고 지원하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과 같은 전담부서의 운영과 감염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은 감염관리간호사와 병원감염관리 전문가인 병원역학자로 구성된다. 이 중 실제적인 감염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감염관리 간호사의 적정 인원은 미국의 경우 250병상 당 1명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내 의료계의 노력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감염관리에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1991년 최초 감염관리 간호사가 발령받은 것을 필두로 현재 국내에서 전담 감염관리 간호사를 채용한 병원이 60여개를 상회하게 되었다. 의료계와 정부에서의 관심도 증가하여 1992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8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준칙'을 발표하였고,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사업'과 '병원표준화심사'에도 각각 1995년과 2000년도부터 병원감염관리가 심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병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는 1995년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1996년에는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가 발족되도록 하였으며, 이들 단체를 통해 병원감염관리 학술대회, 연수과정 개최, 학술지 발간 등과 다기관 공동 병원감염률 조사, 감염관리 현황조사 및 각종 필요한 학술활동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국내 의료비 지불체계가 행위별수가제이며, 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병원과 3차 진료기관들에서 감염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운영하면서 감염관리를 진행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처럼 완벽한 감염관리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보다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은 감염관리 전담부서 및 전담요원의 확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병원감염감시사업, 병원감염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보상체계의 마련 등이 시급하다 하겠다.